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모래무지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잉엇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15cm 정도이며, 은백색이다. 등과 옆구리에 엷은 황갈색의 반점이 있으며 배는 희다. 머리가 크고 입가에 한 쌍의 수염이 있다. 강의 모랫바닥에 사는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문헌의 첫 기록	수록 용례	수록 내용
17세기	7개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7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모래무지'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잉엇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15cm 정도이며, 은백색이다. 등과 옆구리에 엷은 황갈색의 반점이 있으며 배는 희다. 머리가 크고 입가에 한 쌍의 수염이 있다. 강의 모랫바닥에 사는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모래무지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모래무지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모래므디 사전 표기 요약	—	—	●→	—	—	—
모래무지 사전 표기 요약	—	—	—	●→	—	●→
모릐무지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모래므디
  17세기
- 모래무지
  18세기20세기현재

- 모ᄅᆡ무지
  19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모래므디, 모래무지, 모ᄅᆡ무지

모래무지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모래무지’의 옛말인 ‘모래므디’는 17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모래므디’는 ‘모래’와 ‘므디’가 결합한 것이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ㅁ, ㅂ, ㅍ’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와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 앞에서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면서 18세기에 ‘모래무지’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19세기의 ‘모ᄅᆡ무지’는 ‘ㆍ’의 소멸에 따라 ‘ㅐ’와 ‘ㅣ’의 표기가 혼동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문헌 속의 모래무지

전체 용례 7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7세기 모래므디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모래므디

출처 1690 역어유해 하:38ㄱ

용례 01

문헌 용례

沙骨落 모래므디.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8세기 모래무지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모래무지

출처 1778 방언유석 4:19ㄴ

용례 02

문헌 용례

穿沙魚 모래무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790 몽어유해 보:33ㄱ

용례 03

문헌 용례

穿沙魚 모래무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모ᄅᆡ무지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모ᄅᆡ무지

출처 19세기 광재물보 4:27ㄱ

용례 04

문헌 용례

鯊魚 모ᄅᆡ무지 又 두루쟝이.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모래무지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모래무지

출처 1927 조선일보 7월 20일 석간 1면 용례 05

문헌 용례

오즉 가느다란 모래무지가 물결을 쏘처 올러내리는 양이.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5 조선일보 1월 24일 석간 3면 용례 06

문헌 용례

모래무지 가튼 고기가 물속으로 헤염치며, 풀 사이를 빠저나간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조선어사전 용례 07

문헌 용례

모래무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모래무지에 관한 주석

'모래므디'보다 앞선 문헌에서 '모래무지'를 이르는 '몰애부리'가 나온다. [예] 鯊 몰애부리'몰애부리'는 모래를 뜻하는 '몰애'와 동사 '불-'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부리'가 결합한 것이다. 모래무지가 모래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모래를 입으로 부는 습성을 동사 '불-'로 나타낸 것으로 추정한다.'모래므디'의 '므디'도 '묻-'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모래에 몸을 숨기는 모래무지의 습성을 '묻-'으로 나타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다만, '묻-'은 15세기부터 '묻-'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디'가 아닌 '므디'로 왜 나타났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모래무지의 보충 설명

1802년에 만들어진 ≪물보≫에서는 ‘모래뭇이’, 1820년경에 저술된 ≪난호어목지≫에는 ‘모릐ᄆᆞᄌᆞ’라고 표기되었다.

모래무지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조항범 1997 ≪다시 쓴 우리말 어원 이야기≫ 한국문원
- 김무림 2020 《국어 어원 사전》 지식과교양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모래무지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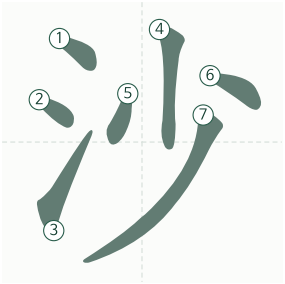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沙

뜻·음 모래 사

총 7획 · 부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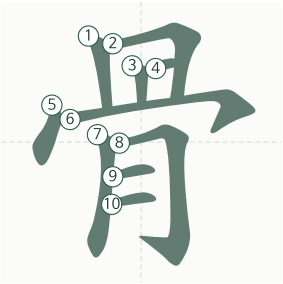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沙/

骨

뜻·음 뼈 골

총 10획 · 부수 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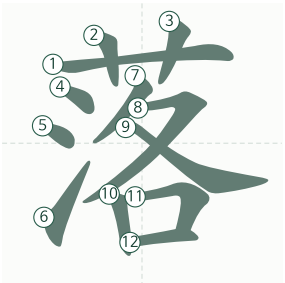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骨/

落

뜻·음 떨어질 락

총 13획 · 부수 艸





사전 13획 · 획순 그림 12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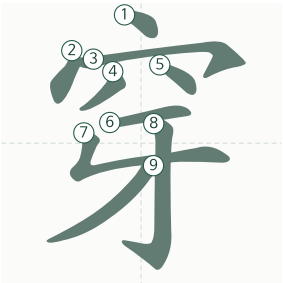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落/

穿

뜻·음 뚫을 천

총 9획 · 부수 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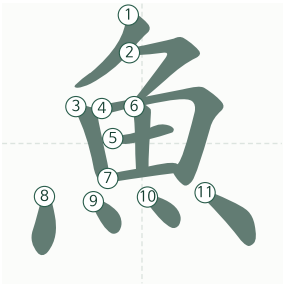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穿/

魚

뜻·음 고기·물고기 어

총 11획 · 부수 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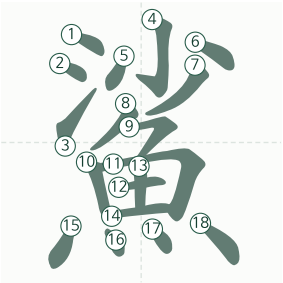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魚/

鯊

뜻·음 상어·모래무지 사

총 18획 · 부수 魚





hanja.wordrow.kr/한자/鯊/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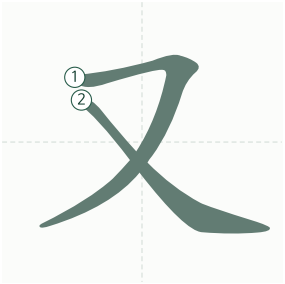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又

뜻·음 **또 우**

총 2획 · 부수 又





hanja.wordrow.kr/한자/又/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